



수신인: 알라메다 카운티 내의 모든 고용주

발신인: 니콜라스 제이 모스, MD, MPH, 임시 보건담당자

제목: 직장에 복귀하는데 코로나 19 진단검사 음성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는 (ACPHD)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얼굴 가리개 사용 요구, 6 피트 간격 유지 확보, 정기적인 증상확인 및 아픈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 등 직장 안전에 대한, 주와 지역의 요구사항을 준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코로나 19 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귀하의 직원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건 담당관 명령에 따라 코로나 19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된 상태에서 10 일 이상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. 11 일째에 더 이상 열이 없고 다른 증상들도 호전되면 격리상태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**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 (ACPHD)는 고용주가 코로나 19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지 10 일 후에 (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양성일 경우) 직장에 복귀하도록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**

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4 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 15 일째 되는 날, 만약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, 자가격리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. **자가격리를 완료한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때 음성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.**

이러한 권장 사항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(CDPH)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(CDC)의 과학적 증거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중 보건 표준입니다. 이전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반복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임상적 가치가 없습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10 일 후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명백합니다.

코로나 19 음성여부확인검사는 그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. 매우 민감한 검사라서 그 사람이 전염을 멈추고 나서 몇 주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음성여부확인검사는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코로나 19 로 인해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에 부담을 줍니다. **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(ACPHD)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의사나 의료 제공자의 메모도 권장하지 않습니다.**

귀하의 협조와 우리의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.

추가정보에 대한 리소스:

-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(CDPH) - <https://www.cdph.ca.gov/Programs/CID/DCDC/Pages/COVID-19/Updated-COVID-19-Testing-Guidance.aspx>.
-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: <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hcp/disposition-in-home-patients.html>.
-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(ACPHD): <http://www.acphd.org/media/568880/acphd-covid-19-release-from-iso-or-guar-and-return-to-work-criteria-english.pdf>.